

# 정치적 격동의 시기 반영한 현실분석

## 21세기에도 빛날 20세기의 고전 7 외국사회학편

신광영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출판저널》은 신년호(제248호)에서 특별기획으로 뽑은 20세기 고전 130선을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다. 제251호(99년 2월 5일자)에는 그 첫편으로 한국문학을 실은 데 이어 한국철학(제252호), 한국사회과학편(제253호), 외국고전 가운데 외국문학(제255호)·외국철학(제256호)·외국역사·인류학편(제257호)을 소개했다. 이번호는 외국사회학편을 실는다.

20세기 사회학은 고전 사회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토대 위에서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격동기 사회를 분석하는 다양한 논의들이 등장해 수십만권의 책이 쏟아졌다. 국내 사회학자들이 20세기 사회학의 고전으로 뽑은 저서도 이런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지만, 대체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책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격적인 학문적 저술이라기보다는 대중성과 시사성을 띠는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같은 저작이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서 뽑힌 반면, 베링턴 무어의 고전인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과 같은 무거운 책은 뽑히지 못했다.

### 새로운 이론으로 인식지평 확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내내 겪은 정치적 격동으로 보다 현실 참여적이고 정치적인 분석서들이 많이 선호된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점은 사회학이 사회변동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에 대한 비판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사회학의 발전은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이뤄졌다. 여성·국제관계·권력·지식 등에 관한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해 인식의 지평을 확대시켰다. 20세기 사회학의 발달 과정은 이런 인식지평의 확대 과정이었다.

먼저 1916년에 출간된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마르크스의 애매모호한 이론적 관점을 대체해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과 식민지와의 관계를 자본주의 발달과정과 연결시켜 분석하고, 반제국주의 투쟁이 반자본주의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이 책은 20세기 제3세계 정치에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책 가운데 하나였다. 20세기 들어서 발생한 급진적 혁명의 대부분이 레닌의 제국주의에 영향을 받아 일어난 제3세계의 농민혁명이었다는 사실이 이런 사실을 잘 보여준다.

헝가리 출신의 사회학자 칼 만하임의 저서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는 사람들의 사고와 지식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연구한 것이다. 그는 지식사회학이 사회적으로 편파적이지 않은 지식인이 정치와 이성을 연결시킬 수 있는 학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독일의 나치와 헝가리 공산당의 억압을 경험한 그는 기존 정치질서와 권력의 신화를 벗기 고자 이 책을 저술했다. 그의 이런 관심은

그후 1960년대와 70년대 반문화 운동에 크게 반영됐다.

시몬드 드 보바르의 《제2의 성》은 페미니스트 이론의 효시를 이루는 중요한 저작이다. 남성은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되지만,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존



윗줄 왼쪽부터 보바르·벨·사이드·윌러스틴·부르디외·토플러.

재할 수 있는 종속적인 존재라는 인식은 그 당시 지식인 사회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책에서 제시된, 주체가 아니라 타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인식은 주체를 회복하기 위한 여성들의 투쟁인 페미니즘 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

만하임과는 다른 관점에서 같은 헝가리 출신의 칼 폴라니는 《대변혁》에서 자신이 겪은 야만적인 파시즘과 제2차 대전의 기원을 분석했다. 《대변혁》은 자본주의 시장 사회의 등장과 몰락에 관한 것이다. 폴라니는 영국의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한 자기규제적인 시장의 성장이 야만적 전쟁을 불러 일으킨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 전지구적인 시각으로

C. W. 밀즈의 《사회학적 상상력》은 그 당시 경험주의에 매몰된 미국 사회학을 비판하고 우리의 삶과 더 넓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밀즈는 1962년 45세의 나이로 일찍 죽었지만, 밀즈가 쓴 이 책은 미국의 젊은 급진적 지식인들에게 정신적인 자원으로 미국 신좌파 형성에 큰 영

향을 미쳤다.

다니엘 벨의 《이데올로기의 종언》은 서구에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이제 소진됐다고 주장했다. 소련의 변질(나치와의 협약, 강제수용소, 헝가리 침공)과 서구 사회의 변화(복지국가의 등장)로 낡은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물론 60년 후반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학생운동·민권운동·반전운동 등에 의해서 부정됐지만, 일찍이 전통적 이데올로기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셜 맥루한은 벨과는 반대로 대중적 이데올로기가 매스 미디어에 의해 만들어짐을 《미디어의 이해》에서 밝히고 있다. 매체의 속성이 일상 생활의 구조를 바꾸기 때문에 활자매체는 달리 전자매체는 시간과 공간을 통합하는 지구촌(global village)을 만들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맥루한은 매체에 의해 만들어지는 초현실 세계의 등장을 지적해 오늘날 미디어 이론의 선구자 역할을 담당했다.

베링턴 무어는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

### < 20세기 외국사회학 분야의 고전 >

국적	지은이	책 이름	발간년도
소련	블라디미르 일리히 레닌	제국주의론	1916
헝가리	칼 만하임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1929
	칼 폴라니	대변혁	1957
프랑스	시몬드 드 보바르	제2의 성	1949
	피에르 부르디외	구별짓기	1979
미국	라이트 밀즈	사회학적 상상력	1959
	다니엘 벨	이데올로기의 종언	1960
	후기 산업사회의 도래	1966	
	베링턴 무어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	1973
미국	이매뉴얼 윌러스틴	근대 세계체계 I·II·III	1974·1980·1989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	1981
캐나다	허버트 마셜 맥루한	미디어의 이해	1964
팔레스타인	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	1978

## 20세기 사회학은 고전

사회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토대 위에서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20세기 내내 겪은 정치적 고통으로

현실참여적이고 정치적인

분석서들이 선호됐다. 또한 여성·

국제관계·권력·지식 등에 관한

새로운 이론이 등장해 인식의

지평을 확대시켰다. 20세기 사회학은

이런 인식지평의 확대과정이다.

적 기원》을 통해 근대 정치체제가 자본주의 이전 농업사회의 계급관계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농업의 상업화를 통해 자본주의적 시장이 농업사회에 들어오면서 이로 인한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따라 민주주의, 과시즘과 공산주의 체제로 다른 역사적 궤적을 겪게 됐다는 것이다.

무어가 정치체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I. 윌러스틴은 《근대 세계체제 I·II·III》에서 경제체제에 초점을 맞춰 현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등장을 밝히고 있다. 윌러스틴은 기존 사회학에서 보이는 일국 중심의 분석에서 벗어나 세계체제 수준에서 사회의 변화를 분석해 사회학의 지평을 전지구적인 시각으로 확대시켰다.

근대화론을 비판하면서, 오늘날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주변부나 반주변부 사회들은 중심부(서구)와의 지배-종속적 관계로 인해 세계체제 내에서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윌러스틴은 마르크스주의의 지적 전통에 기반을 두면서도 교조적이지 않은 역사사회학자로 국제사회학회 회장이자 역임한 세계적인 지성으로 인정받고 있다.

70년대 서구 사회에 대한 또 다른 비판적 저술은 아랍 출신의 에드워드 사이드에 의해 이뤄졌다.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을 통해 유럽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시아관(정확하게는 아랍에 대한 견해)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보여줬다. 오리엔탈리즘은 동

양을 지배하고, 재구축하고, 동양에 대해서 권위를 갖기 위한 서구적 양식이라고 보았다. 즉 오리엔탈리즘은 '우리'로서의 유럽인과 '타자'로서의 아시아인의 구분을 통해 만들어진 유럽인의 정체성 가운데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푸코의 저서와 마찬가지로 사이드의 책은 90년대 확산되고 있는 지식과 권력의 문제, 탈식민주의에 관한 논의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피에르 부르디외는 1979년에 출간된 《구별짓기》를 통해 사람들의 물리적·상징적 질서 내에 각인된 기호(taste)나 성향이 계급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계급관계와 개인을 매개하는 것은 실질적인 인간의 행위를 통해 형성되는 아비투스라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전통적인 구조와 개인의 이분법을 극복했다. 거의 모든 문화분석이 부르디외의 작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영향력은 사회학뿐만 아니라 철학·인류학·문학 등 인문과학 전 영역에서 발견된다.

## 학제간 상호 영향력 커져

현대사회의 변화를 그린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은 산업사회 이후에 나타나는 정보사회의 도래를 그리고 있다. 표준화·획일화·집중화·대중화로 특징지어지는 산업사회와 달리 정보사회는 다양화·유연화·분산화·개별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런 사회로의 변화를 그리고 있다. 이것은 벨의 《후기 산업사회의 도래》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만, 좀더 대중적인 저서라는 점에서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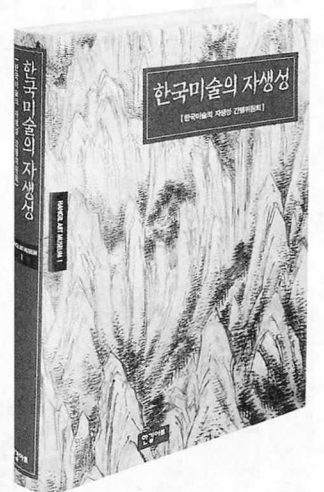
제2차 대전 이후에 새로운 사회이론이 더 많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그만큼 기존 사회이론이 포착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점차 학제간 상호 영향력이 커지면서 철학·문학·역사학·인류학·경제학·사회학 사이의 교류가 크게 확대돼, 어떤 저서가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조차 모를 시대가 됐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서가 21세기에도 빛나는 저서가 된다는 사실이다. ❖

## 학제의 출간

# 우리 미술의 정체성 조명

## 한국미술의 자생성

한국미술의 자생성간행위원회 편저



한길아트 뮤지엄 첫번째 산물인 《한국미술의 자생성》은 '한국미술의 정체성'이란 주제 아래 한국미술 전공자 22명이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한국의 미술 총체적으로 점검한 역작이다.

주제별·통사별 접근을 통해 우리 미술의 원형을 탐구한 이 책은 장구한 역사를 거둬들여 오면서 독자적이고 창의적이며, 자연스러운 멋과 향을 지닌 우리 미술의 힘과 원천을 밝히고 있다.

제1부는 고대미술을 집중 조명한다. 제2부는 조각·회화편으로, 한국미술의 독특한 장르인 불교미술과 근대 진경산수의 세계를 꼼꼼히 살핀다. 제3부는 한국미술의 또다른 금자탑을 쌓아올린 '건축·공예' 분야를 조명하고, 제4부는 한국 근대미술을 탐구한다. 제5부는 근·현대 서구미술의 영향 속에서 한국미술의 자생성 문제와

21세기 한국미술의 정체성 문제를 규명한다.

《한국미술의 자생성》은 우리 미술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조명하고 있지만, 그 끝은 한국미술의 정체성 탐구에 닿아 있다. 전지구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국미술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오완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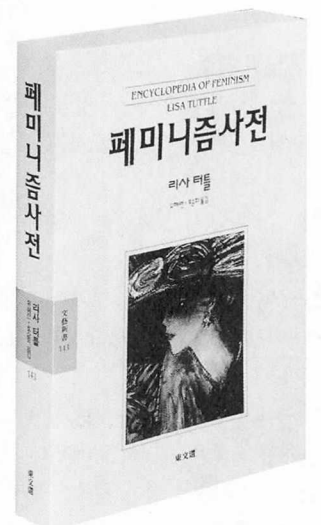
한길아트/A4변형/688면/40,000원

## 학제의 출간

# 여성운동 관련 항목 집대성

## 페미니즘 사전

리사 터틀 지음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운동 가운데 하나가 페미니즘 운동이다. 세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이 평등한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사회운동으로 자리한 것이다.

여성운동가이자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리사 터틀의 《페미니즘 사전》(유혜련·호승희 옮김)은 결코 간단히 정의내릴 수 없는 페미니즘에 관련된 1천여 자료를 한데 묶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풀이한 것이다. 페미니즘의 경로를 결정짓는 데 기여한 인물, 즉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부터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성차별에 반대한 남성뿐만 아니라 혁명가·반동주의자·학자·예술가·활동가로 지칭되는 여성까지 망라해 소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권리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기구, 페미니즘 운동과 사상에

영향을 끼친 사진, 페미니즘이 낳은 슬로건, 서적과 사상, 그리고 수많은 사회적 토끼를 망라해 담았다. 또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어휘, 즉 가사·결혼·포르노그라피·폭력 등과 관련된 용어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오완진>

동문선/A5신/588면/2600원